

地域과 함께 하는 原子力



정 정 군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 홍보관리과장

「이」들을 낳아 원님으로 보내려면 남쪽의 옥당골이나 북쪽의 안악골로 보내라」는 옛말에 나오는 옥당골은 바로 영광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정2품 당상관의 자제들이 벼슬길에 오른 뒤에 처음으로 부임하는 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영광군이 면 27개와 섬 12개를 거느렸으며 가까운 군 15군데에서 거둬들인 세곡을 관리하는 조창이 법성포에 있어 멧과 풍류를 아는 여유있는 고을이었으며, 쌀, 누에고치, 소금 그리고 눈이 많아 사백(四白)의 고장으로 불리던 곳으로, 이제는 영광하면 영광굴비와 영광원전을 떠올리게 되었다.

영광원전의 현황

86년 8월, 87년 6월 상업운전에

돌입하여 전국 전력생산량의 약 12%를 점하고 있는 영광 1, 2호기와, 95년 3월과 9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약 62% 공정을 보이고 있는 영광 3, 4호기가 건설되고 있는 영광원자력본부는 가마미해수욕장을 옆에 끼고 병풍속의 그림같은 금정산에 둘러싸인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의 125만평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시설용량 각 95만kW인 1, 2호기와 시설용량 각 100만kW인 영광 3, 4호기는 가압경수로형으로 3, 4호기가 준공되면 390만kW의 국내 최대 원전단지가 형성되어 서해안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 경제발전의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후속기가 추진될 경우 거의 600만kW의 시설용량을

갖는 원자력단지가 형성될 것이다.

지역과 함께 하는 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는 원자력발전의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원전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함께 알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원전에 대해 신뢰를 쌓도록 하는 활동에 원전홍보의 중점을 두고 있다.

1. 운영자료, 시설의 공유

원전의 실상을 왜곡되거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지역주민이 이해하도록 하여 주변에 깔린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발전소 운영자료의 공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관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초청하여 발전소운영 및 현안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원전설명회와 더불어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여 원전운영 실상을 알리고, 특히 환경방사능관리 측면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방사능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이를 조선대 원자력연구소에 보내 분석결과를 주민들에게 발표하여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발전소 운영현황과 지역소식을 담은 「홍농문화」라는 소식지를 매월 11,000여부를 발행하여 인근지역 4개 읍면 전세대와 기관단체, 학교 등에 배포

하고 있다. 이 소식지에는 환경방사능 측정결과, 방사성폐기물 발생 현황은 물론 발전소내의 각종 사건, 사고와 움직임을 담고 있어 발전소 운영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유적 소개, 각종 생활정보와 주민의 창작품도 함께 담고 있어 지역과 발전소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시설의 지역문화 공간화를 위해 원자력전시관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여 시설제공은 물론 하객수송 버스를 지원하고 기념품과 함께 필요시 발전소 간부가 주례를 맡는 등 이제는 지역 결혼식장으로 정착되어 92년 한 해동안 만도 35쌍의 결혼식을 원자력전시관에서 올리기도 하였다.

작년에는 전시관 공원에 소동물원을 조성하여 원숭이, 공작, 비둘기, 다람쥐, 구관조 등을 사육하여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의 소풍 및 특별 과외활동 장소로 각광을 받기

〈표 1〉 92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구 분	구매내용	구매량	금 액
쌀	· 구내식당(영광원전, 본사, 기타 사업소) 및 직원단체구매	4,467포	1억1천6백만원
	· 한전, 동자부 단체구매	7,827포	2억1천2백만원
소 계		12,294포	3억2천8백만원
채소류	· 영광원전 구내식당 부식류(홍농 농이민후계자) 납품	소요전량	약 4천7백만원
기 타	· 해태, 건고추 단체구매		약 4백만원
계			약 3억7천9백만원

시작하였다.

농한기에는 보유하고 있는 액정비전을 이용해 인근부락을 방문하거나 초청하여 극영화와 함께 홍보필름도 상영하고, 방학기간에는 인근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감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시관을 소극장으로 탈바꿈시키며, 여름 피서철에는 인근 가마미해수욕장과 구시포해수욕장에 가설극장을 개설하여 피서지 모래밭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추억을 만들어 주어 피서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한다.

2. 지역농산물 구매운동 전개

원전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원전주변지역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91년 10월 홍농농협과 함께 추계사내체육대회와 병행하여 지역농산물품평회 및 직구매행사를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여 TV 및 신문 등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원전지역 농수산물 구매운동을 한전은 물론 동자부 산하기관까지 파급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이 행사를 계기로 각 지역의 한전 구관장에 원전지역 특산품코너가 개설되고, 92년말에는 한전 및 동자부 주관으로 원전지역 농수산물 12억원어치를 구매하여 원전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원전사업 지지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 구내식당에 소요되는 쌀은 홍농농협과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채소 등 부식류는 홍농농민후계자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민후계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토록 하여 지역속의 원자력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지역농산물 직구매행사



〈그림 2〉 육영사업(교육기자재 지원)

3. 지역행사 참여홍보

국민의 날, 읍민의 날 행사와 단오제 및 굴비아가씨 선발대회 등 지역의 각종 행사를 후원하고 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 원자력이 지역의 밝은 이웃임을 지역민들이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역의 산악회, 테니스회, 축구회 및 난·수석·서에 취미클럽 등 각종 서클과 원전직원 동호인 서클의 연계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함께 호흡하고 함께 활동함으로써 깊은 유대를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출신 직원들이 지역 사회단체에 가입토록 권유하여 이들을 통한 자연스런 홍보로 지역주민의 원전에 대한 지지기반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광원자력문화진흥회라는 주민 자생단체가 결성되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역주민의 활동이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언론홍보활동 강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원자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론인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하여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원자력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관내기관장, 지방의회의원과 함께 지역주재기자 5명이 일본의 원자력 관련시설을 시찰도

록 하여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작년 11월에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한전 전남지사 주관으로 광주, 전남지역 언론사 대표들이 일본의 원자력 관련시설을 시찰하여 많은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향후 원자력에 관한 지역언론의 올바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즉시 배포하여 바로잡도록 하고, 지역에서 발간되는 교육전문지인 호남교육신문에 「가족이 함께 보는 원자력문화교실」을 마련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올바른 원자력지식을 심어주도록 하고 있다.

5. 지역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90년부터 시행되어 온 지역협력 사업은 이제 지역주민의 원전지 지 기반 확충의 가장 중요한 요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영광 원자력본부에서는 협력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증대사업을 점차 확대시키고, 93년부터는 육영 사업에 지역지원금의 20%를 할애토록 하여 보다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2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소득

증대사업에 채소재배시설 등 20여건에 2억4천3백만원, 공공시설사업에는 흥농읍민회관 건립 등 38건에 12억5천6백만원, 육영사업에는 중 고등학생 60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기자재 지원, 도서 지원, 운동부 지원 및 우수졸업생 표창 등에 1억원을 지원하였다. 93년에는 연간 21억원으로 지역지원금이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 등 보다 가시적인 사업을 펼 계획으로,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흥농읍민다목적회관 건립에 2억 2천만원, 가마미 상수도관 교체 1억6천만원, 백수읍의 대신-구수간 도로 확포장 8천2백만원 등과 직접

적인 소득증대사업으로 공동양식, 칠암폭포수 개발, 향월어판장 설치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4억2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육영사업은 주변지역 자녀의 영구적인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10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키로 하여 2억1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국민학교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과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 1억원의 장학금 지급, 교육기자재 구입 및 수리지원과 도서구입 지원 등 많은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맺음말

원전 PA는 원전산업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적 지지 없는 원전산업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원전 PA는 원전산업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공통된 책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원전종사자들이 원전 홍보요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각자 맡은 바 몫을 충실히 수행하여 훌륭한 발전소 운영실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속의 원자력발전소라는 의식을 지역주민이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에 더 많은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영광원자력본부에서는 「지역과 함께 하는 원자력」을 구현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지역협력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신뢰와 이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림 3〉 전시관의 결혼식장 이용